"그날의 아픔,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5주기

문 대통령 "아이들 기억하며 안전 다짐"

"긴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 같아 다시는 비극 되풀이 않도록 각오… 진상규명 철저히 세월호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 세상 바꾸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인 16일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긴 세월호 5주기 추모 메시지에서 "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줄 것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될 때마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해왔다. 지난해 4주기 때에는 별도의 추모메시지에 이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이들을 추모했다.

5주기인 이날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을 하게되면서 SNS 메시지로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다. 늘 기억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이뤄진 세월호 희생자 영정 이안식을 언급하면서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며 최근 강원 산불 때의 모습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먼저 챙겼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 총리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노골적으로 계속돼"

안전의 날 행사서 "책임소재 안가려지면 문제 안끝나 세월호 참사, 생명·안전에 대한 경각심 불러일으켜"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부 세력은 이제 진상조사에 협력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16일을 안전정책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로 삼자는 뜻에서 2015년 제정됐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 뒤 "그 날부터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다. 더구나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지에 대한 걱정마저 생기고 있다.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그 참사는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다"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큰 고통을 줬지만 동시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안전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 세브란스 병원 화재, 남양주 찜질방 화재,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에서는 피해자가 없었다. 모두 잘 대처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병원 화재 등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고, 산업현장에서는 최근에도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지만 국민과 지자체, 정부의 노력으로 사회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으로 교통사고 감소, 메르스 확산 차단, 조류 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성공, 강원도 산불 조기 진화 등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했고 정부는 많은 제도와 운영을 보강하고 개선해 왔다"며 안전을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고 꾸준하게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 개선하겠다"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입법이 되는 대로 시작하고,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지난 2년의 경험에서 확신하게 됐다"며 "국민과 지자체가 정부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뉴시스

민주 "세월호 진상규명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피해자 범위를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지원하자는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세월호 희생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김관홍 잠수사법'으로도 불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되는 아물지 않은 상처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이 국민 뜻으로 교체됐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출범과 조사를 방해하는 관련자는 처벌이 안 되고 전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하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 잊지 않겠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인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추모 분향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헌화, 분향을 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세월호 5주기 맞아 애도 논평 이어져

민주 도당·바른미래 도당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의 애도 논평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5년 전, 세월호와 함께 멈춰버린 희생자들의 시계 바늘 소리가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귓가에 맴돌며 검은 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슬픔을 표현했다.

특히 "참사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당시 무능한 정권의 책임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며 온갖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인에 대한 책임자도 처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라는 말은 허울 좋은 메아리일 뿐이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과제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속으로 떠나버린 영혼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 299명과 미수습자 5명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고통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통감, 그리고 공동체적 치유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미래의 위상"이라며 "막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대해서는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 장애 어린이 불편함 없어야"

도의회 한완수 부의장, 개선사항 전북도에 전달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임실)은 16일 현재 공사 중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방문해 장애어린이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이전에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 체험관 건립과정에 반영하고 장애어린이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도와 전북시각장애인협회, 전북농아인협회, 전북장애인인권연대 등 관계 기관 및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종 이동편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은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하에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농어업인,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많은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당 전북도당, 오늘 제3금융중심지 무산 긴급 현장최고위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은 17일 오전 10시 혁신도시 연금공단 앞에서 제3금융중심지 유보에 대한 규탄 및 대책에 대한 제16차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1시에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 주최로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지도부와 도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제3금융 중심지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군산경제 소생대책 등 전북현안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23일까지 '신북방' 행보… 첫 순방지는 투르크메니스탄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향해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한다.

취임 후 첫발을 내딛는 중앙아시아는 '신(新)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로 꼽히는 자원 부유국이다.

문 대통령은 도착한 날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인 17일 오전(이하 현지시각)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존의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교통·물류·인프라 외에 보건·의료, ICT 등 여타 미래 성장동력 분야 협력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이번 방문 계기에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할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독립기념탑 헌화 및 식수, 국빈 만찬에 참석해 양국 우호 관계를 돈독히 다질 예정이다.

18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시로 이동해 우리 기업이 지난해 10월 수주·완공한 키얀리 가스 화학 플랜트 현장을 방문한다. 이 곳은 현지 최초 가스화학단지다.

같은 날 오후에는 두 번째 방문국이자, 중앙아시아 신북방정책의 거점국으로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출발한다. /뉴시스